

▶면에서 이어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윤재학 학부장은 현재의 규정에 대해 타 전공 소속 학생에 관한 규정 해제는 '긍정적'이나 영어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간의 다전공 허용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관련 논의가 언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향점'은 다르지만 배우는 것이 비슷한 두 전공의 학생들의 다전공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관점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좀 더 깊은 속사정이 숨어있다. 현재 외국어대학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의 수요'에 대한 측면이 그것이다. 외국어대학 행정실 오상민 행정실장은 "이공계열은 서울캠 다전공자가 적겠지만, 어문계열인 외국어대학 내에선 300명 가량 된다"며 "다전공 금지조항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을 선호하므로) 영어를 배우러 더욱 서울캠에 몰리고,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강의개설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성화'의 방향이 학생들에게 외면받으면서, 결국 제도를 통해 강의개설 수요를 조절하지 않으면 학생 수자 유지와 학과의 존속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차후에는 교직원과 교수의 수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국제캠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1980년 신설된 '영어영문학과'를 모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캠에는 이미 문과대학 내에 영어영문학과가 있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분·본교 논란이 일자, 학교는 2005년 국제캠 '영어학과'를 '영미어학부'로, 2012년 분·본교 병적 통합 당시 '영미어학부'에서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영미문화 전공)'로 학과명을 재변경했다. '통합'이 아닌 '특성화'의 길을 택한 것이다. 외국어대학 이한규(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학장은 "당시 학과통합이 시행됐다면 유사학과가 많아 너무 큰 파동이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두 학과만의 통합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성화 방향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정수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0) 양은 "명칭 변경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름을 생뚱맞다고 생각했었다"라며 "지금의 방향성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홍(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3) 군 역시 "사실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며 "영미 문화트랙의 일부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특성화된 과목은 없는 것 같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에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2일 각각 공시한 '2015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에 의하면 현행 제도에서 국제캠퍼스 소속 학생은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서울캠퍼스 영어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서울캠 소속의 학생 역시 국제캠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다"고 말했다. 영어학부 송창섭 학부장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영미어문을 전공한 학생은 영어학부의 영문학과 겹치는게 너무 많아진다"며 "수원 교수님들이 이 우려하는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유사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외국어대학 측은 '장기적으로 계열 간·학과 간 통합이 돼야한다'고 말한다. 이 학장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외국어'는 응용이 아닌 '순수학문'이다"라며 "이공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과 가까이 있는 편이 '시너

지'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문제시되는 두 학과 역시 '영어'라는 외국어를 매개하는 공통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 박광현 교무처장은 "어떤 형태의 결단이 됐건, 대학 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은 결실을 보기까지 기분이 7~8년이므로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해당 다전공 관련 사항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 더 나아가 캠퍼스의 계열별 특성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다"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2015-2 사회봉사과목 이수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이수 과목 "사회봉사1,2,3" 강좌의 학점이수시 공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 2015-2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03학번(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단계별 이수)
이수여부	자유이수(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학점체계	1학점(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봉사 인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65기원봉사포털(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서울시] 봉사활동 확인서는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 ● 교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체계봉사단, 입학지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 교내 캠페인), 경희부속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 내 자원봉사, 경희온라인 자원봉사, 후나니스클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글로벌센터 IFCC 한국어도우미)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3.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제출기간	2015. 11. 16(월) ~ 2015. 11. 27(금) 오후 5시 30분 마감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정시간 : 32시간 이상(3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2.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협력증은 1장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 학기 + 수강 신청 학기) 동안 최대 2정(총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지구사회봉사단

공영일 이사, 17대 이사장으로 새로 선임
김용철 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

보도팀 khunews@khu.ac.kr



퇴임한 이후에는 경희대학교 의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미원기념사업회 위원장직을 함께 수행 중이다. 조원원 상임이사는 1950년 서울 출생으로 우리학교 동서의학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같은날 김용철 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전임 상담원 1명당 재학생 비율



※재학생은 대학알리미 참조. 상담원 수는 각 대학 홈페이지 참조.

학생상담 한 학기 이상 기다릴 때도
서울, 전임 상담원은 단 1명?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우리학교 학생수 대비 전임 상담원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 전임 상담원 수는 현재 총 6명으로 이 중 국제캠퍼스(국제캠)에 4명, 서울캠퍼스(서울캠)에는 2명이 배치돼 있다. 특히 서울캠 상담원 수가 부족하다. 위기개입과 자살상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맡고 있는 학생생활연구소장을 제외하면 서울캠의 경우 재학생이 13,000명이 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신문이 지난 2010년 이미 상담인력 부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개선은 없는 상태다. (대학주보 1474호 2010.10.29)

현재 학생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캠 '학생생활연구소'에는 객원 상담원을 포함해 하루에 3명의 정도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학기 이상을 기다리기도 한다. 철학과 A양은 "3월 말에 신청했지만 상담을 받으려면 한 학기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한 학기가 지나고 연락이 왔지만 그때는 이미 상황이 해결된 상태였다. 좀 더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신문이 규모가 비슷한 사립대학 5

개 학교(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의 상담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전임 상담원은 3~4명, 객원 상담원의 수는 6~7명 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학교는 국제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임 상담원이 4명에 객원 상담원은 없고 서울캠의 경우 '학생생활연구소'에 전임 상담원 2명, 객원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생활연구소 오윤자 소장은 "타 학교와 달리 우리학교는 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부재로 인해 인원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다"라며 "하지만 객원을 포함한 상담원의 수나 전문성은 양호하며 자살 등 긴급히 필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소장은 "전임상담원 인력 확충을 위해 대학본부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상담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실제 이뤄지는 상담 수를 늘리려면 공간과 예산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사무처의 인사팀은 "현재 학교의 제반 사정으로 교직원 충원과 보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임 상담원이 한 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력 충원 요청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다음 인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5.11.02(월) ~ 12.11(금)

· 접수기간 : 2015.10.12(월) ~ 2015.10.27(화)

● Level Test

· 영어회화 : 10.27(화), 10.28(수) 17:30

· 일본어·스페인어회화 : 10.27(화) 17:15

· 중국어회화 : 10.27(화) 18:10

● 강의시간표

월	7:45 ~ 8:45	18:00 ~ 18:30	19:20 ~ 19:30	19:50 ~ 20:00	20:50
화	스페인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2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수	스페인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2 독일어회화 초급	프랑스어 초급2 스페인어 중급			
목	베트남어 초급 스페인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2 독일어 회화 초급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금	베트남어 초급 Academic Writing(Essay)	프랑스어 초급2 스페인어 중급			

Tel. 02) 961-0081~2 http://www.jie.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